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2017 홈스쿨 Festival



윤영미(최진오/ 최현지) | 살롬 홈스쿨

2017 홈스쿨 페스티벌! 해마다 돌아오는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와는 기대부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글로벌홈스쿨아카데미에서 함께 했고, 보고 싶었던 졸업 선배와 휴학 가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스쿨에 관심 있는 가정을 초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더욱 기쁘고 설렘했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한 손은 함께 하는 홈스쿨 가정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홈스쿨이라 생각했기에 제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형제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기다려졌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고 치열하게 홈스쿨의 방향을 고민했던 가정들이라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홈스쿨 관심 가정도 함께 초대하게 되었는데 등록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400명이 넘는다는 목사님 말씀에 장소도 협소하고 스텝도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입구 안내에서부터 간식,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척척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지나온 길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피곤하고 지칠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코업 활동은 언제나 우리 계획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작게나마 포트폴리오를 모으고 아이들의 활동사진과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성장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었습니다.

하나 돌씩 자리가 가득 차고 이제 뮤지컬 팀의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GHSA의 초기 목사님인 이재현 목사님의 홈커밍 토크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가정의 홈스쿨의 방향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초등 뮤지컬 팀인 가스펠에서는 각 아이들의 진짜 고민을 관객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고민을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문화로 가득 찬 환경과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어린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눈물이 났습니다. 뒤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관객 모두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과수원길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옛날 순수했던 학창시절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녁 만찬 행사가 이어지고 모두가 식사가 끝나 음식과 테이블을 정리하는 시간에도 우리 가정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모두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길,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세세하게 채워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GHSA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홈스쿨 Festival



▲ 등록설명회



▲ 등록



▲ 포트폴리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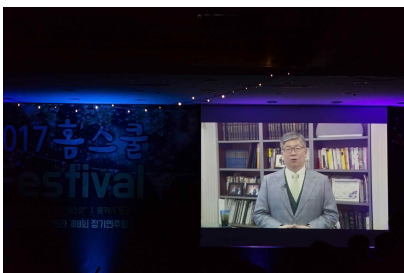
▲ 홈스쿨 상담



▲ 공연



▲ 뮤지컬 공연



▲ 축하인사



▲ 홈스쿨 토크



▲ 정기연주회



▲ 만찬